

고대 한국의 군사적 전통과 병학의 형성

白 奇 寅*

- 1. 머 리 말
- 2. 한국 고대의 군사적 전통
- 3. 삼국시대의 병학 형성
- 4. 맺 음 말

1. 머 리 말

한국사상 어느 시기에 중국의 병서가 수용되었느냐 하는 문제의식과 무관하게 이미 삼국시대의 삼국에서는 보편적인 병법이 널리 행해졌다.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나 유학이 전래되고, 한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병서가 자연스럽게 삼국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병서의 전래가 언제나 하는 문제는 역사적인 하나의 연구주제일 수 있지만,¹⁾ 이는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 지금까지 한국의 고대병법의 문제는 중국 병서의 수용이란 관점에서 이해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저작은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 『고병서해제』(병서연구 제6집), 1979; 石岡久夫, 『日本兵法史-兵法學の源流と展開』上, 東京: 雄山閣, 1981;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

한국 병법의 시작, 즉 한국 병법의 시원에 관한 문제제기일 수는 없다. 손자·오자 등의 수용문제와 무관하게 고조선이나 고구려에서는 이미 고래의 병법적인 지식이 널리 활용되었고 그 자체가 고대의 병법적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사에서 최초의 국가형태인 성읍국가를 이룩한 고조선시대의 군사적 유제와 상무정신은 한국적 군사 전통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고조선 사회에서는 청동기와 같은 예리한 무기가 사용되었고, 또한 초기 철기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일정한 무장력을 갖춘 전사집단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적 지배자들은 군사지휘관이기도 했다. 그들은 무기를 제작·사용했고, 세습적인 지배체제하에서 천신, 선민사상의 문화적 유습을 발원시켰다.

특히, 국중대회는 사회적으로 상무적 기풍을 진작시켰고, 군신숭배의 습속은 무강한 고조선인들의 기상을 드러낸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보여주듯이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군사는 단호하게 외침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힘을 기르면서 '하늘의 군대'라는 천병의식을 가졌고,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산신이 되어 성산에 진좌해 영원히 나라를 지킨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고조선시대의 전통은 삼국시대에도 군사적 전통으로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전해졌을 것이다. 고대국가의 발전단계에서 영토확장전쟁을 거친 고구려·신라·백제의 군사적인 활발한 움직임에는 각기 고유한 군사적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군사병법이 뒷받침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전통적인 군사운용법이 정착되었고, 여기에 다시 중국의 병서적인 지혜가 결합됨으로써 일련의 '한국적 고대병학'이 형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고대 병법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

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김영수,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민족문화』 29, 2006.

금까지 연구성과에서는 중국 병서의 수용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거나, 아니면 그 같은 한국 병법의 시원에 관한 문제는 도외시켰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본고에서는 삼국의 병학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중국 병서의 수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병서의 수용 이전의 고대적인 군사 유제와 발전과정에서 한국적인 병학의 토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한 것이다.

2. 한국 고대의 군사적 전통

(1) 상고시대의 군사사상·문화

흔히 역사학자들은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의 형태였던 신석기시대는 물론이고 성읍국가시대에도 군사조직이 따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씨족이나 부족은 그 자체가 그대로 군사조직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년의 씨족원 또는 부족원은 곧 군인이었고, 그들은 무술을 미성년집회에서 습득했고 성년식을 통해서 일정한 시련을 거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²⁾

인류의 먼 조상인 구석기인들은 자연물을 채취하거나 사냥 등 수렵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움막집에서 가족단위인 무리(群社會, Bands)를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수단으로써 일정한 무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대체로 그들은 타제석기나 골각기를 무기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떤 군사적인 유제나 유물·유적을 남긴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

다. 다만 구석기 유적지에서 석기로서 발견된 주먹도끼와 찍개·찌르개 등은 후일의 중요한 무기로 쓰인 창끝의 시원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³⁾

구석기시대가 지나가고 신석기인들이 등장하면서 생활방식은 채집생활에서 점차 정착생활로 옮겨지게 되었고, 특히 후기에는 농경생활의 시작을 입증하는 이삭 따는 반월형 석도나 탄화미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식량의 생산단계가 열렸다. 그러나 신석기인들의 정착생활은 그 조건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적 도전이나 상호 간에 갈등을 야기하여 생존을 위협하거나 집단 간의 싸움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활·돌도끼·돌창 등 생활도구가 무기로 전용되었고, 단순하지만 활과 화살, 활촉이 위력을 발휘했고 석창 역시 무기로 사용되었다.⁴⁾

어느 정도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군사적 성격이 현저하게 드러난 시기는 청동기시대였다. 청동계 무기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성읍국가가 출현하고, 일정한 무장을 갖춘 전사와 정치적 지배자로서 군사지휘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B.C. 9, 8세기경에 성읍국가로 출발하여 B.C. 4세기경에는 연맹국가, 즉 초기국가로 성장한 고조선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성읍국가에서 초기국가로 넘어오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인 고조선에서는 무기가 제작·사용된 것이 확실하고, 지배자의 철학이 강화되면서 천신(天神), 선민사상(選民思想)이 나타났다.⁵⁾

여기에서 고조선을 보다 확대하여 고조선시대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데, 고조선시대라 하면 대체로 기원전 4세기로부터 기원후 3세기에 해당 하는 시기로 보아 고구려·신라·백제가 삼국시대를 형성하기 이전의 시대를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고조선시대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원형적인 위치에 있는 셈

3) 김기웅 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pp. 7-11.

4) 김기웅 외, 『한국무기발달사』, pp. 11-25.

5) 신형식, 「역사적 측면(고대·중세)」, 『한국사사상대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 11.

2) 이기백,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군사사논문선집-고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p. 2-3(이기백,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학보』 6, 1977 소수).

이다. 부여(夫餘), 위만조선(衛滿朝鮮), 옥저(沃沮), 예(濊), 초기 고구려, 그리고 삼한(三韓)과 가야(伽倻)가 모두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⁶⁾

고조선의 사회상은 사료가 충분하지 않아 그 완전한 모습을 그리기 어렵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의 고대사적의 기록들에서는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드러낸다.⁷⁾ 사회 전반에 상무적 기풍이 넘쳤으리라는 점은 『삼국지』, 「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에서 “부여인은 활과 창·칼로 병기를 삼고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다”라고⁸⁾ 한 기록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부여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가 평화시에도 항상 유사시를 대비하여 무장하고 있었다.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는 고조선인의 기상과 상무적 습속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모국이기도 하다. 역시 같은 서적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적의 침공시에는 모든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가 싸웠다. 백성들은 군량을 운반하여 병사들을 먹였다”고 전한다.⁹⁾ 부여의 군사제도를 알려주는 짧은 자료이지만, 이 기록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전투원이 아니면 준전투원으로서 참전했음을 말해준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전투에 참여한다는 원칙은 그 후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으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내려왔다. 전쟁에 군인이 따로 없고 모든 국민이 군인이라는 사상은 한민족 고유의 습속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이렇듯 당시 고조선시대의 사회인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용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서들은 도처에 그러한 고조선시대에 살았던 한민족의 용맹성을 전하고 있다. 『후한서』의 기록에서는 “씩씩하고 용맹스럽다”고

했고,¹¹⁾ 고구려인에 대해서는 “흉악하고 급하며 기운이 세고 싸움에 익숙하다”고¹²⁾ 하였다. 또한 옥저(沃沮)와 예인(濊人)을 가리켜 “매우 씩씩하고 보전(步戰)을 잘한다”고 평했는가 하면, 남쪽의 한인(韓人)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다.¹³⁾ 『삼국지』에서는 한인을 “그들은 성질이 몹시 강하고 용맹스럽다. 국가나 관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성곽을 쌓고, 또 모든 젊고 용맹하고 씩씩한 자들을 뽑아 … 단련하였다”라고¹⁴⁾ 하고 있다.

당시 고조선시대의 한민족은 활·칼·창 등을 무기로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창과 활이 매우 주목되었다.¹⁵⁾ 예인들의 창은 “길이가 세 길이나 되며 몇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며”라고 했는가 하면, 옥저인 또한 창을 잘 쓰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활의 경우, 특히 유명하여 고구려와 옥저는 맥궁(貊弓) 혹은 단궁(檀弓)이라 부르는 좋은 활을 생산하였다.¹⁶⁾ 게다가 읍루(挾婁)의 활은 강하여 활의 길이가 4척이나 되었고, 그 활의 힘은 마치 쇠뇌와도 같았다. 화살은 사리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1척 8촌이나 되었으며 청석으로 축을 만들고, 그 끝에는 독약을 칠해서 사람이 맞기만 하면 이내 죽었다고 한다.¹⁷⁾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기사만으로 고조선시대의 상무적인 기풍을 속단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조선은 옹녀로 대표되는 신석기문화인 집단과 환웅으로 상징되는 청동기문화인 집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고조선은 건국 초기에 제사장이 정치적 군장을 겸임하는 제정일치의 국가였다. 박성수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¹⁸⁾ 고조선사

6) 김철준, 『한국고대국가발달사』, 한국일보사, 1975, pp. 26-82. 최남선은 1919년 6월 월간 『青春』 14호에 기고한 「稽古箭存-檀君暨夫餘時節」(『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pp. 14-42)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7) 이병주, 『한국의 군인정신』, 삼화출판사, 1978, pp. 52-54.

8)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條. “以弓矢矛刀爲兵, 家家自有鎧仗.”

9)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

10) 박성수, 『국군의 맥』, 육군본부, 1992, p. 20.

11)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夫餘國條.

12)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高句麗條.

13)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濊條 및 韓條.

14)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15) 이병주, 『한국의 군인정신』, pp. 53-54.

16)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沃沮條 및 高句麗條.

17)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挾婁條. : 이동화, 『조선의 궁술』, 조선궁술연구회, 1929.

18) 박성수, 『국군의 맥』, pp. 21-31.

회의 민간습속이나 신앙 등 기층문화를 통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고조선사회의 상무정신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임금인 환인의 아들 환웅은 태백산에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신령한 나무인 신단수 아래에 신의 도시인 신시(神市)를 세워 고조선을 열었다. 환웅은 웅녀와 결합하여 단군왕검을 낳았으며, 단군이 다스리는 신시에는 군신(軍神) 숭배사상이 있었다. 무장한 장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러한 기상을 가진 고조선인들은 중국의 대국들과 자웅을 겨뤘다. 고조선사회에 군신신앙이 존재한 것은 무를 숭상하고 무장을 찬양한 상무적인 기풍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군신숭배사상을 갖고 있었던 고조선은 무단의 나라가 아니었다. 고조선의 건국을 전하는 단군신화에서는 다른 민족의 건국신화와 달리 결코 정복이나 투쟁성이 보이지 않는다. 고조선은 군신숭배의 나라로 치우가 중원을 정복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활달한 기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말해주듯이 평화를 사랑하고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이었다. 고조선인들은 지상천국의 건설을 현실적으로 갈망하고, 인간 중심의 원대한 사상을 건국정신에 담았던 만큼, 주변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현실적인 힘을 길렀다. 일찍부터 체험적으로 힘이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특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속(國俗)은 평화시뿐만 아니라 전시에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 침략자를 맞아 목숨을 바쳐 싸울 때는 반드시 하늘에 제천하고 필승을 다짐한 뒤 싸움터로 나갔다. 이것을 군사제천(軍事祭天)이라 했다.¹⁹⁾ 고조선에는 8명의 행정관 중에 군사를 다스리는 장관으로 웅가(熊加)가 있었고, 모든 백성이 농민이자 군인이었다. 고조선인들은 하늘에 선택받은 천민(天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천병(天兵)이라 믿었다. 그들은 천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도움을 빌고서 전장으로 나갔던 것이다.²⁰⁾

19)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條.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이러한 군사제천은 고조선사회의 삼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상무적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 외에 국가적인 행사였던 국중대회 또한 무술대회와 같은 군사적 성격을 띠었다.²¹⁾ 국중대회는 제천행사가 끝난 뒤에 거행되었다. 제천행사는 산마루에서 먼저 거행되고 이어 산중턱에 내려와 신단수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마을 어귀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장엄하게 치러졌다. 국중대회는 모든 제사 차례가 끝나고 난 후의 차례였다. 대회의 종목은 한맹(寒盟), 수박(手搏), 검술, 궁술, 격구(擊毬), 금환(金丸), 주마(走馬) 등이었고, 이밖에도 씨름, 줄다리기와 그네뛰기, 널뛰기, 자치기 등 전통 민속과 연결된 것들이었다.

당시 고조선의 습속은 그 자체가 상무정신을 드러내는 군사적 성격을 띤 것이었고, 단군이 신시에서 탄생하여 아사달로 천도하고 퇴위한 후에는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는 전설은 고조선의 산악숭배신앙을 말해준다. 단군이 성산에 진좌해 영원히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산악숭배사상은 호국신적 표징을 나타낸 것으로 군신숭배사상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었다.²²⁾ 이러한 고조선사회의 상무적 전통은 고조선에 이어 동북부지역에 세워진 부여국에 계승되었고, 다시 부여를 계승한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졌다.

한편 고조선사회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전략전술적인 운용력을 발휘했는데, 대체로 강은양면의 대외정책노선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전략은 고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생존 자체와 연계된 근본적인 방위관념과 안보의식이 투사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원전 7세기경부터 중국의 제(齊)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던 고조선은 주변국과 ‘원교근공’의 대외관계를 유지했으나 결국 접경국인 연(燕)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

20) 박성수, 『국군의 맥』, p. 27. 이러한 천병의식과 출정시의 제사행위가 반드시 고조선사회만의 전유적인 유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여러 민족들이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습속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1) 朴成壽·長野覺, 『韓國·檀君神話と英彦山開山傳承の謎』, 福岡, 海鳥社, 1996, p. 36.

22)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휘문출판사, 1978, pp. 44-45.

전략적인 요충지라 할 요하(遼河)가 그 접적지역이었다. 고조선은 전국 7응으로서 철제무기로 무장하고 거듭되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강국으로 부상한 연에 비해 전투경험이나 군 조직력은 미흡했지만,²³⁾ 요동지역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삼아²⁴⁾ 후방의 안전한 지대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대응하였다. 고조선은 한반도 내륙지역의 안전지대인 평양으로 옮기고 왕검성이라 했는데,²⁵⁾ 이로써 동호족과의 문화교류가 끊어진 고조선은 청천강 이남에서 세형동검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후기 청동기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²⁶⁾ 그들은 강대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힘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전략적 후퇴나 우호적인 외교관계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선수후공(先守後攻)'을 주전략으로 중국대륙에 맞섰던 것이다. 진(秦)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조선은 진군을 맞아 필사적인 저항을 했고 청천강 이남으로 주민이 이주한 상황에서도 공지를 활용한 후퇴전략을 구사하여 청천강 이남의 중심부를 지켜냈다.

요컨대 강대국을 상대로 고조선은 정면대결보다 힘의 열세를 전략적 후퇴로 조정하고,²⁷⁾ 접적국과의 사이에 힘의 공지(空地)를 설정하면서 후일을 기약하는 탄력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은 대외관계에서 '선수후공'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힘의 균열을 억제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력균형이

23) 崔大庸, 『中國古代兵器的鑄造與藝的發展』, 『文史知識』(1994-1), pp. 86-87; 백기인, 『중국군사제도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51-52.

24) 백기인 외, 『한민족전쟁사총론』, 교학연구사, 1988, p. 49.

25) 1980년대 후반부터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지를 대동강 유역이라고 본 전통설과 달리 연의 침공으로 요녕지방에서 대동강유역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일조각, 1988;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 1990). 이 견해는 비파형동검을 조형으로 한 세형동검이 기원전 3세기 초부터 대동강유역 일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26) 이기동, 『한국사강좌』(I-고대편), p. 58; 윤무병, 「한국청동유물의 연구」, 『백산학보』 12, 1972, pp. 224-227.

27) 서인환,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45.

란 본질적으로 세력팽창의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조선은 성장과정에서 대외적인 팽창노선이 불가피했는데, 그러한 강경정책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전국칠웅의 하나인 연(燕)과의 전쟁이 그러했고, 중국의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과의 충돌이 그러했으며, 이어진 한(漢)과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다. 고조선의 발전은 한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그 자체가 한의 침공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었다.²⁸⁾

이 같은 고조선의 대 중국관계는 한반도의 중심국가와 대륙국가인 중국과의 전형적인 관계가 되었다. 예컨대, 고조선은 위만(衛滿)과 그의 손자 우거왕(右渠王, 기원전 110~108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력을 축적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의 부당한 이민족정책(異民族政策)은 결국 양국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는 한나라의 대군을 맞아 온 국력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패망하고 말았다. 『동국병감』은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기록을 간추려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고조선군의 분투상황과 한군의 기동 및 작전경과를 기술하고 있다.²⁹⁾ 사마천의 기록을 따라 『동국병감』에서도 고조선이 양복(楊僕)의 수군 부대를 격파한 고조선군의 활약과 왕검성 포위 2개월이 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면서 제기된 한군 지휘관들의 초조감을 주목했는가 하면, 단편적이지만 적의 내분을 교묘히 이용하여 지연전을 전개한 고조선 측의 방어전술이나 성기(成己)에 의한 부흥군의 조직적인 저항 등 고조선과 한의 전쟁 상황을 피아 구분없이 다루었다. 특히 위만조선의 몰락의 원인을 내부 분열로 인한 붕괴로 보고, 실제 전투는 한나라가 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고조선의 대외전쟁은 전쟁대상국은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적대국들이었고, 고조선은 대륙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그들의 팽창정책에

28)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 1, 1994, p. 39.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동국병감』, 1984, p. 2.

따라 일시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하거나 중국에는 상호 충돌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전쟁의 발발 시기 또한 대륙 방면의 정치적 상황이나 팽창정책에 의한 대외관계, 혹은 대외관계의 역관계에 의해 필요적으로 조성된 국면에 의해서 고조선 침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한족과의 전쟁은 대체로 원하지 않은 시기에 원하지 않는 곳에서 방어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

(2) 고대의 군사적 유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역시 사회적으로 군사적 성격이 강하면서 사회 전반에 상무정신이 팽배하였다. 고구려에는 -동맹에서 드러나듯- 고조선시대의 국중대회가 계승되었고, 건국자인 주몽이 명궁이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통치자나 군사지휘관에게 기마선사(騎馬善射)와 같은 군사적 재능은 필수적인 덕목이었다. 유목과 수렵적 풍습이 행해진 고구려에서 왕들의 전렵은 통치행위이자 군사행동의 일종이었고, 평양 천도 후부터는 국가적 수렵행사로 중앙군의 군사훈련적인 성격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고구려인들의 상무적 기질을 더욱 강화했다.³⁰⁾ 고구려사회에서는 군사조직과 지방의 행정조직이 일체화되어 있었다. 평민교육기관인 경당(扁堂)에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활쏘기를 한 고구려인들은 문무의 양학을 장려하고 병서와 무예를 가르치는 군사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성장하였다. 을지문덕이 바로 그렇게 배출된 군사엘리트였다.

백제 역시 고구려와 같은 군사적 전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백제의 군사조직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통치조직의 형성과 함께 발전했을 것이다. 국왕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초기에 제천행사나 국중대회가 있었고, 국왕의 정치적 권위와 국민의 결속

을 위한 전렵과 순무 및 순행이 행해졌다. 또한 국왕의 통수권 차원에서 국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친솔(親率)하거나 병력을 파견하는 건병(遣兵)도 있었다.³¹⁾ 국왕의 전렵으로부터 시작된 군사력에 대한 통제가 열병·대열 등 군대의 사열의식으로 발전된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대열(大閱)은 백제의 국왕이 5부(部) 단위로 존재한 군사력에 대한 중앙의 통제인 통수권 차원에서 행해졌는데, 처음에 대열은 선주민 집단인 부의 군사력에 대한 국왕의 지배력을 통수하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했지만 점차 대외관계에서 발생한 군사적 행위의 대응형태로 나타났다.³²⁾ 그리고 백제에서 관사나 습사 혹은 사대(射臺)의 건립과 운영은 사회 전반에 군사적 훈련이나 이를 시행하는 시설·기관이 있었을 것임을 시사해주며,³³⁾ 전렵 또한 기마전술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전렵은 일종의 권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국왕의 순행과도 결합되었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군사훈련을 넘어서 전쟁의 대응방식이 되기도 했다. 서기 8년 온조왕이 전렵을 빙자해 군사를 움직여 전렵을 한다면서 마한을 습격하여 국읍을 병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백제사회에서 전렵은 기마와 활쏘기를 포함한 정치·군사적 유제였다.³⁴⁾

삼국사회에는 고대국가의 성격상 영토확장과 국가권력 확립의 측면에서 군사적인 면모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신라의 경우는 불교나 화랑도의 활동으로 국가적인 관심과 장려에 힘입어 상무정신과 호국정신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정신가치로 승화된 측면이 두드러졌다. 삼국 시대에 충효사상은 빈번한 전쟁을 통해서 자연히 요구되었는데, 신라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표시한 실천규범이자 국가사회가 요구한 행동원리로서 발원하여 정치사상으로 발전된 점이 특징적이다.³⁵⁾ 충효사상(忠孝思想)을 고대

31) 노중국,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95, p. 189.

32)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p. 54.

33)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고이왕 9년 7월, 비류왕 17년 8월, 아시왕 7년 9월, 개로왕 21년 9월.

34)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온조왕 26년.

30)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p. 28.

국가의 운영원리로 삼은 신라사회는 한문화(유교)의 발전과 함께 구체적인 규범의 형성은 물론 민중의 교화과정을 통합시켰다. 내물왕 때 물계자(勿稽子)는 전형적인 충효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³⁶⁾ 귀산과 추항에게 원광법사가 내려준 세속오계는 충효와 종교적 가치 등이 결합된 실천규범이었다.³⁷⁾

또한 청년 화랑들이 천지신명에게 맹세한 서약을 적은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신라인들의 충(忠)에 입각한 국가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³⁸⁾ 그들이 간직한 충성은 멸사봉공의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순국·보국의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신라에서 충효의 실천이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와 이념이었음은 『삼국사기』의 열전에 나타난 69명의 인물 중 28명(41%)이 충효의 표상이었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신라에서 충효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과 만나 신라인의 국가관과 생사관에 영향을 미친 점은 주목되는 측면이다. 신라는 불경과 경문의 전래와 보급을 통해 유교경전의 이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와 유교를 융합시켰다. 불교는 왕실에 의해 수용되어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국교로서 장려되었고, 당시의 사찰은 산간이 아니라 주로 수도를 비롯한 도시에 건립되어 호국불사(護國佛事)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렇듯 불교적 가치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라인의 정신은 호국정신을 발양시켰다. 예컨대, 이른바 호국신보(護國神寶)와 호국신성(護國神聖)의 존재는 신라 사회를 통합하고 신라인의 정신력을 더욱 굳건히 했으며, 호국안민의 정신적 근간으로서 신라를 수호하고 모든 재앙을 물리쳐 준다는 믿음과 함께 신라인의 호국적 전통을 이룩했던 것이다.³⁹⁾

35) 김상현, 「신라의 역사와 사상」, 『한국사상사대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 88-89.

36) 『三國遺事』 권5, 避隱 8, 勿稽子.

37) 『三國遺事』 권4, 義解 5, 圓光西學.

38) 「壬申誓記石」,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天誓 …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39) 김영태, 「불교신앙의 전개양상과 생활세계」, 『한국사상사대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 320-323.

한편, 고대사회의 군사적 유제는 교육훈련을 통한 이른바 ‘양병(養兵)과 용병(用兵)’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고구려부터 보면, 고구려의 전사들은 용감했고 전술적으로 고구려의 산악지형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고구려에서는 국중대회가 있어 군사적인 무예를 겨루었고, 국가적인 수렵행사인 전렵이나 회렵에는 중앙군인 5부병들의 군사훈련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체도가 발달하면서 이들 사회의 수렵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상무기질과 군사적 재능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경당이 출현했다. 그곳에서 습사(習射)는 매우 보편적인 군사 전문가 양성의 과정이 되었다. 평민 자제들에게는 병서와 무예를 가르쳤기 때문에 고구려 사회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저변을 급속히 확대시켰다. 을지문덕의 예에서 보듯이 경당은 평민들의 출세 코스로 일정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⁴⁰⁾

고구려의 방법은 대체로 적군인 중국의 전통적인 분진합격(分陣合擊)에 대항하여, 청야전술(淸野戰術)과 이일대로(以逸待勞)를 기본으로 하는 수성전(守城戰)을 통해서 적의 역량을 말살시키는 소모전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적에게 소모를 강요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구전으로 몰고 간 후, 적군의 보급선이 신장되고 조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결국 적군이 퇴각할 때 주요 지점에서 매복작전으로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다시 추격전을 전개하여 퇴각하는 적을 섬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대체로 고구려군의 작전개념은 전형적인 ‘선수후공’이었다.⁴¹⁾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0) 이기백, 「고구려의 경당」, 『역사학보』 35·36, 1967, pp. 48-50.

41) 고구려가 보여준 청야입보전술은 조선시대에까지 계승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은 외침에 대비하여 일단 유사시에 청야전이나 산악계 릴라전을 전개하였다. 북방민족이 쳐들어 왔을 때는 강화도와 같은 섬으로 피란하기도 했으며, 군사수가 적어 대규모의 적의 정규군과 정면으로 대결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험준한 산 위에 산성을 쌓고 모든 민간과 양식을 불태운 뒤에 산악을 근거로 장기전을 폈다. 밤에는 때때로 기습을 감행해 적군을 괴롭혔다. 한국의 성이 평지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이성무, 「조선시대사 서설-군사」, 『역사학보』 제170집, pp. 336-339).

고조선의 대외전략이 그대로 계승된 흔적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한반도의 지정·전략적 조건에 의한 불가피한 그러나 최적의 방어책이 아니었겠는가 여겨진다.

이 같은 고구려의 군사전략은 반드시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하는 평지성과 산성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전술적으로 견고하게 연결된 성곽과 인근촌락민과의 유대, 그리고 각 성간의 긴밀한 지원망의 구성 및 중심깊은 성곽배치에 의한 축차적인 방어체계의 형성 등이 고구려의 전쟁수행의 기본틀을 결정했다. 게다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에 현저해진 북수남진(北守南進)의 정책은 육로와 해로의 군사력을 동시에 활용한 수륙병진(水陸並進)의 전략적 운영을 실현시켰다.⁴²⁾

고구려의 군사전략가로는 서기전 9년의 선비족 침공시에 활약한 부분노, 98년 후한의 요동군 침공 때의 을두지, 그리고 172년 역시 후한의 태수 경림군에 대적한 명림답부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들은 고구려에서 『손자병법』의 도입이나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능수능란한 병법적인 운영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특히 명림답부의 경우는 적 정보와 적군의 전투능력, 지형과 계절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쟁지도 능력을 발휘했다. 을지문덕의 경우도 그렇고, 연개소문 또한 정치적인 리더십의 한계가 거론되지만 군사적으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연개소문은 군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고구려의 수성전법을 넘어서 보·기의 합동의 기본 방법에 전차의 운용을 결합시켜 적극적인 평야전을 시도한 군사력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선진적인 병법운용에 탁월한 이해와 능력을 가진 비상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백제 또한 국왕이나 지도층은 친수(親帥)하거나 견병(遣兵)에 직접 참여

42) 윤명철, 「광개토대왕의 군사작전에 대하여 -수군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정신과 정책』, 학연문화사, 2004.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동국병감』, 1984; 洪良浩, 『海東名將傳』,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참조.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선사력(善射力)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정치적인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일찍이 군사 지도자로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는 전쟁의 수행유형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렵문화적 전통과 농경문화형이 양립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사회적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인들은 초기에는 고구려를 대상으로 한 전쟁도 수행했지만 대체로 신라를 상대로 편향적인 일방의 공격 중심 전쟁을 수행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군사력 양성과 운용에 치중했다. 게다가 ‘요서경략설’에서 보듯이 해양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안목도 갖추었다. 그리고 백제에서 관사나 습사가 행해졌고, 사대(射臺)도 건립되었던 사실에서는 군사 훈련이나 군사교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강무습사(講武習射)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사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에서의 양병과 용병은 고구려나 백제에서 행해진 전렵과 같은 군사적 양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국왕의 대열의식이 말해주듯이⁴⁵⁾ 고구려와 백제와 유사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신라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신라사회의 호국적인 성격과 깊이 연관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화랑들은 체계적이고 견실한 제도적 틀을 통하여 국가와 군사의 인재로 양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국가관과 생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도의를 실천하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높은 이상적 가치를 향한 용기와 충성심은 군인정신의 전형이었다.⁴⁶⁾

화랑들은 서로 도의로써 수련하고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산천을 주유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교육방법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을 지향하고 있었

44)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pp. 89-94.

45)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pp. 63-70.

46) 화랑도 전반에 걸친 연구는 이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참조.

다.⁴⁷⁾ 특히 그들의 종교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수양은 고매한 정신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 신라 군인정신의 바탕을 이루었다. 예컨대, 김유신의 리더십에서 볼 수 있듯이 지략과 탁월한 무예능력을 겸비하면서도 매사에 지성(至誠)을 다하는 태도,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지혜와 수완을 발휘하는 위기관리능력과 정보능력, 그리고 못 장수나 부하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지휘통솔력 등은 신라 군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⁴⁸⁾

삼국시대의 군인들, 특히 장수들은 대체로 문무겸전의 인물이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문술·우중문에게 시를 지어 그들의 체발(薙髮)을 물리쳤고, 백제의 장수들은 중국의 경전에도 밝았으며, 신라의 화랑들은 심신도야와 무술은 말할 것 없고 유교경전도 수양과목으로 탐독하였다. 예컨대, 대담한 지략과 견식을 가진 김유신은 결코 당시의 무장이 단지 무술만을 일삼는 군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들은 문무겸전의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 교육에서 양성된 국가의 엘리트들이었던 것이다.⁴⁹⁾

47)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

48) 김유신에 대해서는 이기동, 「김유신」, 『한국사 시민강좌』 30, 2002 참조.

49) 김철준은 이러한 전통이 조선시대 세조 때에는 남이 장군이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우고 기개 있는 시를 짓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 또한 시문에 능한 것으로 표출되었다면서, 한국의 명장들은 결코 단순한 무변(武弁)이 아니라 문무겸전의 전형적인 인물들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명장들이 기사나 검술에 능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학문에도 힘써 시대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부하의 통솔과 정신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추어 경륜을 가진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수준 높은 전통문화의 체현자였다는 것이다(김철준, 「김유신장군」, 『국방』 65, 1979, p. 68).

3. 삼국시대의 병학 형성

(1) 삼국의 병학과 일본 전래

한반도의 역사 중에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시대를 삼국시대라 하는데, 이 삼국시대는 국가발전단계로 보면 고대국가에 해당된다. 고대국가란 초기 국가(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신라 등)의 발전된 형태로서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의 성립을 지표로 한 국가 정치공동체를 형성한 단계를 말한다. 따라서 초기 국가단계에서는 정치공동체로서 국가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왕권이 미약하여 군장세력이 잔존했다면, 고대국가에서는 지방의 군장세력이 왕권에 편입되고 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대국가에서는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왕권의 강화와 국가조직의 정비가 병행된 것이 특징이다.

고대국가로 발전한 삼국시대는 시대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했다. 삼국 간의 쟁탈전은 5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남진정책에 따라 백제의 한강유역을 점령하며 종전의 간헐적인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고, 다시 6세기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후진사회였던 신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가세하는 양상이 되었다. 특히 신라가 법흥왕·진흥왕 대부터 북진정책을 감행해 고구려 영토를 병합하거나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마저 점령하면서 삼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삼국의 역관계는 중국세력의 성장과 소멸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국가적 통합도 중국세력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나 유학이 전래되었고, 한자 또한 수용

되었다. 특히 고구려나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불교나 유학을 통해 국가체제 및 사회통합을 모색했다. 중국의 병서 또한 이 같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자의 전래와 더불어 삼국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병법의 역사는, 흔히 삼대(三代)라고 부르는 하(夏)·은(殷)·주(周) 시대에 공공(共工)과 전욱(顛頊)의 투쟁이나 황제(黃帝)와 치우(蚩尤)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⁰⁾ 기원전 2,000년 경에 이미 중국병법이 출현했지만, 『역경(易經)』 『군지(軍志)』 『군정(軍政)』 등과 같은 문헌의 군사기록은 중국 병서의 기록이 대체로 서주(西周) 왕조 이후의 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이다.⁵¹⁾

삼국시대 당시 중국에서는 『손자』 『오자』 『육도』 『삼략』 『사마법』 등의 병서가 이미 널리 퍼져있었다. 삼국시대가 전쟁의 시대인 만큼 상호경쟁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면서 정복전쟁을 지속했기 때문에 『손자』 『오자』 등의 병서를 수입하여 각국이 자국에 맞게 병법을 개발해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국가 교육기관을 두어 『오경(五經)』, 즉 시경·서경·주역·예기·춘추 등과 같은 유교 경전이나 사기·한서 등의 사서는 물론이고 『손자』 『오자』 등의 병서를 교육했으며,⁵²⁾ 지방 곳곳에 설치한 경당에서는 미혼자제들이 궁사(弓射)를 익히면서 병서를 공부하였다.

신라의 화랑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연개소문이 독자적인 병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당 태종이 고구려 침공 직전에 당대 병법의 대가라고 하는 이정(李靖)과 함께 나는 대화에서도 확인되는 바,⁵³⁾ 고려조의 병서로 알려진 『김해병서

(金海兵書)』가 연개소문의 자(字)인 김해를 딴 것으로 연개소문 병법을 담은 것이라는 사실이 결코 허황된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⁵⁴⁾

이러한 교육기관이나 청년 단체에서 수련할 때 사용한 병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명조차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서 병법이 등장하거나 병서를 소개하고 있어 삼국이 중국 병서를 수입해 활용했고, 심지어 고구려의 연개소문 병법이나 무오병법과 같이 삼국이 각기 제 사정에 맞게 독자적인 병법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실제로 어떤 병서들이 언제 수용되었느냐 하는 문제의식과 무관하게 이미 삼국에서는 병법적인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우선 기원전 9년(유리왕 11) 선비족의 침공을 맞아 이에 맞선 부분노의 전략전술이 주목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⁵⁵⁾ 선비족은 지형상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고구려와 화친하지 않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에 고구려에서는 선비족을 응징하고자 했는데, 선비족에 대한 정벌은 부분노(扶芬奴)가 수립한 반간(反間)과 유인 및 협격(挾擊)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작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간자를 통한 아군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정예군사에 의한 매복, 그리고 성 밖에서 아군이 조공으로 적 주공을 유인한 후 정예군사로 공략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기병으로 협공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고구려군의 입체적인 협격을 받은 선비족은 대패하여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서기전 9년(유리왕 11)에 선비족이 국경을 침범했을 때 부분노는 다음과 같은 계책을 내놓았다.

“선비족은 지형이 험고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맹스럽기는 하

50)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pp. 71-82.

51) 高銳, 『中國軍事史略』 上,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pp. 77-80.

52) 육군본부, 『고병서해제』(병서연구 제6집), 1979, p. 17.

53) 『李衛公問對』 上.

54) 박성수, 『국군의 맥』, 육군본부, 1992, p. 54.

55) 『三國史記』 권13, 高麗本紀 第1, 유리왕 11년.

지만 또 어리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우나, 계략을 쓰면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몸소 장군이 되시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시면 신은 기병(奇兵)을 이끌고 대왕을 따르겠습니다.”⁵⁶⁾

유리왕은 군을 이끌고 선비족 지역으로 출정하여 정예부대를 숨겨놓고 선비족의 성 남쪽으로 가서 약한 부대로 선비족을 유인하였다. 선비족이 고구려의 군세가 약한 것으로 보고 성 밖으로 나와 공략하자 고구려군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였다. 이에 선비족이 정예군으로 고구려군을 추격하자 이때 부분노는 정예 기병부대를 이끌고 셋길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고구려 깃발을 성 위에 세우니 선비족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때 유리왕이 깃발을 높이 들고 북을 울리며 군사를 되돌려 선비족을 대파시켜 항복을 받아냈다.

이러한 부분노의 작전술은 『손자병법』의 내용과 흡사한 점이 많다. 대체로 그가 적용한 전술은 적국의 지형과 적군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삼아 간첩을 써서 적을 교만하게 만든 다음, 소수 병력으로 적을 거점으로부터 유인해내고 잠복시켰던 부대를 출격시켜 적의 본거지를 점령하고 나서, 다시 협공을 감행하고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한다는 전법으로 이는 고대 전사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고구려에 중국 병서가 전해졌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전법이 반드시 『손자병법』을 숙달·적용한 것이고,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⁵⁷⁾ 아마도 사냥이 일반화된 고구려의 수렵습속적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군사적 능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⁵⁸⁾

56) 洪良浩, 『海東名將傳』,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 33.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동국병감』, 1984, p. 10.

58) 고구려의 수렵적 전통과 군사적 능력과의 관계는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p. 28을 참조.

또한 서기후 13년(유리왕 32) 고구려와 부여 간에 벌어진 전쟁 역시 고구려의 복병전술이 돋보였다. 부여의 고구려 침공전은 절대 다수의 부여군에 대한 고구려군의 작전술이 주효한 전쟁이었다. 고구려군의 총사령관 무휼(無恤)은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복병전술로 적을 유인하여 기습·격멸하고자 예상 접근로인 학반령(鶴盤嶺)에 강력한 복병을 배치하고 군세를 소수처럼 위장하였다. 이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부여군이 학반령의 복병 배치선을 통과할 때 고구려군은 기습을 가해 대오가 무너져 전열을 상실하고 도주하는 부여군을 추격하여 격멸시켰다.⁵⁹⁾ 또한 18년 대무신왕 즉위 이래 부여정벌전쟁을 감행했는데,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러한 부여의 공략에 앞서 고구려는 12년 왕망(王莽)이 흉노족 정벌을 명분으로 파병을 요청하자 거절하지 못한 채 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출정군은 도중에 중국의 군현을 공격했고, 게다가 추격해오던 요서의 대윤(大尹)마저 살해해버렸다. 그리고 14년(유리왕 33)에 2만 명의 군사로 양맥(梁貊)을 정벌했으며,⁶⁰⁾ 다시 서진하여 한의 현도군(玄菟郡)의 속현을 공략하는 등의 주변 국가에 대한 정벌을 시도했던 것이다. 28년(대무신왕 11)에는 후한의 광무제가 요동군의 병력을 출동시켜 공격해오자 을두지(乙豆智)의 의견을 채택하여 무모한 결전을 회피하면서 성을 굳게 지키는 지구전으로 대응하며 침공군의 예봉을 둔화시켜 스스로 물러가도록 했다.⁶¹⁾ 강대한 한나라를 상대로 한 고구려의 군사적 대응은 강운을 배합한 탄력적인 전략전술을 구사한 것이었다.⁶²⁾

“을두지가 말하기를, 작은 적은 강해도, 큰 적에게 잡히는 법입니다. 신은 대왕의 군사와 한나라의 군사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생각해

59) 백기인 외, 『한민족전쟁사총론』, 교학연구사, 1988, pp. 53-54.

60) 『三國史記』 권13, 高麗本紀 제1, 유리왕 33년.

61) 『三國史記』 권14, 高麗本紀 제2, 대무신왕 11년.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동국병감』, 1984, p. 13.

봅니다. 그들은 피로는 칠 수 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 지금 한나라의 군사들이 멀리 와서 싸우므로 그 예봉을 당할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성을 닫고 굳게 지키다가 그 군사들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려, 나가서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⁶³⁾

고구려의 신대왕(新大王, 165~179)기에 후한의 태수 경림(耿臨)이 대군을 일으켜 침공했을 때의 일이다. 국왕이 여러 신하들과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은가를 논하고 있었다. 이때 국상이었던 명림답부(明臨答夫, 67~179)가 행한 답변은 그 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한은 국토가 크고 인민이 많은 데다가 지금 강병이 멀리 와서 싸우니, 그 예봉을 당해낼 수 없다. 또 군사가 많은 자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은 자는 지켜야 하는 것이 병가의 상법이다. 지금 한인들은 천리길에 군량을 날라 왔으므로 오래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덩이를 깊이 하고 성루를 높이 하고 들판을 비우고 기다리면 저들은 순월간(旬月間)을 지나지 못하여 굶주리고 피곤해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우리가 강병으로써 뒤쫓는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⁶⁴⁾

명림답부의 의견은 분명하게 『손자』나 여타의 병법 내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술적인 원리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당시 여러 신하들은 한나라가 대군을 믿고 고구려를 깔보는 것이므로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지형이 산이 험하고 길이 좁아서 관(關)을 지키면 한군이 쉽게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를 출동시켜 방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하여 명림답부는 “군사가 많은 자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은 자는 지켜야 한다(衆兵者宜戰, 兵少者宜守)”고 전제하면서 적 보급선을 신장시키고, 전통적인 청야전과 추격전을 병행·전개할 것을 주장

63) 『三國史記』 권14. 高麗本紀 제2, 대무신왕 11년.

64) 『삼국사기』 권45, 열전 제5, 명림답부.

했다. 고구려는 172년 11월의 좌원전투(坐原戰鬪)에서 한군을 대패시켰다. 명림답부가 언급한 전술은 『손자』와 꼭 같지는 않지만,⁶⁵⁾ 의미상으로 동일한 일반적인 전투원칙이 널리 구사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고구려의 군사전술이 유목생활의 유습에 기인한 기병 위주의 속전속결원칙으로 나타났다가 후에 영토확장과정을 거쳐 점차 보병의 운용과 성곽을 활용한 청야전법, 그리고 기습공격술로 발전했던 것도 이를 입증한다.⁶⁶⁾

특히 일본의 병법사에 의하면,⁶⁷⁾ 일본에 병법을 전한 주인공이 백제인이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71년 1월에 백제인 달솔(達率) 곡나진수(谷那晋首)·목소귀자(木素貴子)·억례복류(憶禮福留)·답발춘초(答垓春初)가 일본에서 병법을 가르친 공으로 대산하(大山下)의 지위를 받았다. 이들이 일본에 전한 병법이 백제 고유의 병법인지 중국의 병법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 병법에 기초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⁸⁾ 663년 8월 백촌강에서 백제군이 당군에게 대패하자 그해 9월 여자신(余自信)·곡나진수(谷那晋首)·목소귀자(木素貴子)·억례복류(憶禮福留) 등이 백제 유민들과 함께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들 가운데 답발춘초(答垓春初)는 665년 8월 장문국(長門國)에 성을 축조했으며, 억례복류·사비복부(四比福夫) 두 명은 축자국(築紫國)에 2개의 성(大野·及椽)을 축성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백제식 산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⁶⁹⁾

65) 『孫子』, 『謀攻』, “敵則能戰之 少則能守之, 不若則能避之.”: 『孫子』, 『軍爭』, “軍無輜重則亡, 無糧食則亡, 無委積則亡.”

66) 장학근,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6-29.

67) 石岡久夫, 『日本兵法史-兵法學の源流と展開』 上, 東京: 雄山閣, 1981, pp. 6-7.

68)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32.

69) 石岡久夫, 『日本兵法史-兵法學の源流と展開』 上, p. 7. 그런데 佐藤堅司는 『일본서기』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면서 일본에 중국병법이 도입된 시기를 663년 이전으로 보았으며, 특히 『손자』의 전래가 백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 東京, 1962, p. 231). 그러나 그의 663년 이전설은 백제인들의 도래와 관련한 상황으로 볼 때 억측인 듯하다. 663년 이후에서 665년 사이로 보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에 각 국은 중국의 병서를 수입하고 이를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자국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거나 병서도 편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고구려의 연개소문 병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려조의 『김해병서(金海兵書)』의 내용과 편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통일신라의 병학

통일신라 이후에는 병법이나 병서에 관한 자료가 이전 시기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8세기 후반인 786년 신라 왕조의 공식적인 병서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한국의 가장 오래된 병서인 『무오병법(武烏兵法)』 15권과 『화령도(花鈴圖)』 2권이 그것이다. 이는 『증보문헌비고』나 『연려실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이르기를,

“원성왕 2년(786) 10월에 대사 무오가 병법 15권, 화령도 2권을 바치니 그에게 굴압현령의 관직을 주었다.”⁷⁰⁾

라고 하였다.

무오가 지닌 ‘대사’라는 관등은 신라의 17관등 가운데 12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직책인데, 이처럼 낮은 하급관리인 무오가 병서를 올린 일이 계기가 되어 현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무오병법(武烏兵法)』이나 『화령도(花鈴圖)』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자는 일반 병학서로 후자는 진법서로 이해된다. 특히 무오의 병법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문헌에서는 ‘무오병법’이라 했으며 한국 최초의 병서라고 평가되었다.⁷¹⁾ 무오의 병법서와 화령도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70)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10, 元聖王條.

71)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p. 33.

하더라도 문헌상으로 한국인이 저술한 분명한 고대 군사류 전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⁷²⁾

또한 『삼국유사』에는 혜공왕 2년인 766년에 ‘안국병법(安國兵法)’이 등장하고 있다.

“혜공왕 2년 정미(766) ... 대궐 북쪽 뒷간 속에서 두 줄기 연(蓮)이 나고 또 봉성사(奉聖寺) 밭 속에서도 연이 생겨났으며 범이 궁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쫓아가 잡으려다가 놓쳐버렸다. 각간 대공의 집 배나무 위에 참새가 무수히 모여들었다. 안국병법 하권에 의하면, 이런 변리가 있으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임금은 대사령을 내리고, 몸을 닦고 반성하였다.”⁷³⁾

‘안국병법’ 역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침서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간다. 그것은 순수한 병법서라기보다 나라의 통치방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성격의 치국방략서였을 것이다.⁷⁴⁾ 일연이 하권이란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면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듯 평화기인 통일신라시대에는 병서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안위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략서로서 혹은 사회교화의 도구로 기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혜공왕 때의 김암(金巖)과 관련된 얘기가 『증보문헌비고』에 실려서 전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김암은 당나라에서 음양가의 술법을 배워 『둔갑입성법(遁甲立成法)』을 지었고 귀국해서는 사천대박사에 임명되었다. 이후에 그는 폐강진두상(涇江鎮頭上)에 임명되었으며, 이때 농한기마다 육진의 병법을

72) 김성수 외,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9, 1993, p. 78.

73) 『三國遺事』 권2, 기이 2, 惠恭王條.

74) 김영수,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민족문화』 29, 2006, p. 287.

가르쳤다. 이에 대해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혜공왕 때에 김암이 사찬으로서 당 나라에 들어가서 숙위할 때에 이따금 스승에게 나아가서 음양가의 술법을 배우고, 스스로 둔갑입성법을 지어서 그 스승에게 보이니, 그 스승이 말하기를, ‘밝게 통달함이 이에 이를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로부터는 감히 제자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 후에 본국에 돌아와서 집사시랑(執事侍郎)으로서 폐강을 진무하면서 농한기 때마다 육진병법(六陣兵法)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편리하게 여겼다.”⁷⁵⁾

라고 하였다.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기사는 삼국통일전쟁을 전후로 병법이나 병서에 대한 활발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당에서 숙위한 김암의 경우는 음양가의 병법이나 둔갑술 등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 귀국해서도 실제 군무에 종사하면서 병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흥미할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가 직접 육진병법을 시행하고 농한기에 병사훈련에 적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육진병법이란 중국에서 춘추전국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삼진법과 오진법의 기본 진법에서 화력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전술적 운용력이 증대됨으로써 당나라에 와서 큰 관심을 가졌던 진법인데, 이를 신라에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에서도 활발한 진법연구와 개발이 계속되었음을 반증한다.⁷⁶⁾

75) 『增補文獻備考』 권115, 兵考 7, 兵書條.

76) 춘추시대의 주된 병법이 三陣·五陣法으로서 주로 전거전(車兵) 중심의 방진작전이었으나 전국시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진법의 양상은 보병과 기·기병을 양익으로 삼는 협동작전의 형태로서 평야전과 위성전의 양상을 띠면서 복잡해졌다(백기인,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 『군사』 36, 1998). 이후 화력의 발달과 함께 제갈량의 팔진법을 기초로 한 六花陣法이 출현했는데, 六陣兵法이란 바로 당 초의 유명한 병법가인 李靖의 『李衛公問對』에서 논한 六花陣法에 의한 거병·기병·보병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한 병법과

실제로 육화진법이 신라에 소개된 것은 8세기 후반인 혜공왕 때보다는 훨씬 빠른 시기였다. 674년(문무왕 14년) 9월, 문무왕이 직접 영묘사(靈廟寺) 앞길에 행차하여 열병하고 아찬 설수진의 육진병법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7세기 후반 당시 당에서 한참 관심있게 제기되던 육화진법에 대해 신라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서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1세기가 지난 혜공왕 대에도 다시 김암에 의해서 육진병법이 실제 군무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신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진법을 널리 운용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⁷⁷⁾

그밖에도 이미 통일신라에서는 중국병서들도 활발하게 수용되고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삼국유사』에서 ‘육도와 삼략 그리고 칠종오신, 즉 전략과 군기(軍紀)’ 등을 언급하고 있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태조 왕건은 경순왕에게 “부(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귀(貴)는 모토(茅土)에 거했으며 육도삼략(六韜三略)은 가슴 속에 들어 있고 칠종오신(七縱五申)을 손바닥으로 잡았다”라고 말했다.⁷⁸⁾ 이는 975년 고려에 투항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태조 왕건이 상부(尙父)로 책봉하는 고문(誥文)에서 경순왕을 칭송하는 말인데,⁷⁹⁾ 왕건은 육도와 삼략 같은 중국의 병서, 칠종오신, 즉 제갈량이 남만을 칠 때 그 추장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고사나 군기의 엄정함 등 탁월한 전략과 뛰어난 용병술을 거론하면서 신라의 군제와 병학을 평가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pp. 96-140; 백기인, 『중국군사제도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38-61을 참조.

77)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p. 34.

78) 『삼국유사』, 기이2 김부대왕.

79) 김영수,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pp. 286-287.

4. 맺 음 말

지금까지 한국의 고대 병학의 형성과정과 중국 병서의 수용문제를 통하여 고대 한국의 병학적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는 먼 인류의 조상인 구석기시대를 거쳐 신석기시대부터 점차 단순하지만 활과 화살, 활촉 등이 등장했고 석창도 무기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어느 정도 군사적 성격이 현저히 드러난 것은 청동기시대였다.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인 고조선에서는 무기가 제작·사용된 것이 확실하고, 지배자의 철학이 강화되고 천신·선민사상이 나타났다. 특히 군사제천은 삼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상무적 기풍을 진작시켰고 국가적인 행사인 국중대회는 군사적 성격을 띠었다. 주변의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노선을 취한 고조선은 지전략적 조건 때문에 '선수후공전략'으로 맞섰는데, 이는 후일 고구려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역시 사회 전반에 상무정신이 팽배하였다. 유목과 수렵적 풍습은 계속되어 전렵을 통해 군사행동과 연결되었고, 평민 교육기관인 경당에서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활을 쏘며 병서·무예를 가르치는 등 문무양학을 장려하는 풍토가 형성되었다. 백제 역시 고구려와 같은 군사전통이 있었을 것이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국왕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제천행사나 국중대회가 열렸고 전렵과 순무·순행 등도 행해졌다. 전렵에서 시작된 국왕의 통수권 행사는 열병이나 대열과 같은 군 사열의식으로 발전된 흔적이 뚜렷하고, 관사·습사 혹은 사대의 건립 등은 군사훈련시설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삼국시대가 고대국가의 영토확장과정에서 상호충돌이 빈번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군사적인 면모가 강했다 하겠지만, 신라의 경우는 그 같은 토

대 위에 불교나 화랑도의 활동으로 국가적인 관심과 장려에 힘입어 상무정신과 호국정신이 국가적인 정신가치로 승화된 측면이 두드러졌다. 충효사상을 고대 국가의 운영원리로 삼은 신라사회에서는 충효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과 만나 신라인의 국가관과 생사관에 영향을 미친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삼국에서는 중국 병서의 수용 이전에 이미 고래의 방법이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의 방법은 적군인 중국의 전통적인 '분진합격'에 대항하여, '청야전술'과 '이일대로'를 기본으로 하는 수성전을 통해서 적의 역량을 말살시키는 소모전을 유도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하는 평지성과 산성의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고구려는 견고하게 연결된 성곽과 인근 촌락민과의 유대, 그리고 각 성간의 긴밀한 지원망의 구성 및 중심 깊은 성곽배치에 의한 축차적인 방어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에 현저해진 북수남진의 정책은 육로와 해로의 군사력을 동시에 활용한 수륙병진의 전략적 운영을 실현시켰다.

백제 또한 일찍이 무장을 자랑했지만, 전쟁 수행의 유형에서나 혹은 문화적으로 수렵문화적 전통과 농경문화형이 양립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신라에서는 체계적이고 견실한 제도를 통하여 국가와 군사의 인제로 양성된 화랑제도가 성립된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국가관과 생사관은 물론 인간의 도의를 실천하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높은 이상적 가치를 향한 용기와 충성심은 군인정신의 전형이었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나 유학이 전래되었고, 한자 또한 수용되었다. 중국의 병서는 이러한 한자의 전래와 더불어 삼국에 전파되었다. 예컨대,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국가 교육기관을 두어 시경·서경·주역·예기·춘추 등 오경이나 사기·한서 등 사서는 물론이고 손자·오자 등 병서를 교육하고, 지방 곳곳에 설치한 경당에서는 미혼자제들이 궁사와 병서를 익히며 공부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기관이나 청년 단체에서 사용한

병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명조차 제대로 전하지 않지만, 증보문헌비고나 삼국사기·삼국유사 등의 기록에서는 병법의 등장과 병서를 소개하며 삼국이 중국 병서를 수입해 활용했고, 연개소문 병법이나 무오병법 등 삼국이 제 각기 독자적인 병법개발에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어떤 병서들이 수용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이미 삼국에서는 고래의 병법적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서기전 9년의 선비족 침공시에 활약한 부분노, 98년 후한의 요동군 침공 때의 을두지, 그리고 172년 역시 후한의 태수 경림군에 대적한 명립담부 등은 고구려가 배출한 병법의 대가들이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명립담부가 구사한 전략은 손자나 여타 병법 등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술적인 원리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 172년 11월의 좌원전투에서 한군을 대패시킨 고구려의 전략전술은 이미 상당한 고구려적인 병학의 축적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더욱이 삼국시대에 백제인들은 일본에 병법을 전해주었다. 일본에 전한 병법이 백제 고유의 병법인지 중국의 병법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일부는 백제식 산성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재래적인 병법의 토대 위에서 삼국시대의 각 국은 중국의 병서를 수입하고 이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적합한 병법을 개발하거나 병서를 편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조의 '김해병서'와 고구려의 연개소문 병법이 상호 간에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결코 무리한 추측만은 아닐 것이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병법이나 병서에 관한 자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786년 기록상 최초의 한국 병서가 신라 왕조의 공식적인 병서의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무오병법' 15권과 '화령도' 2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766년에는 '안국병법'이 등장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침서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혜공왕 때의 김암이 당나라에서

음양가의 술법을 배워 '둔갑입성법'을 지었고, 귀국해서는 사천대박사에 임명되어 농한기마다 육진의 병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당시 당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병법을 신라가 도입하고 있음에서 신라가 활발한 진법연구 및 개발을 계속했음을 알려준다. 그밖에도 통일신라에서는 '육도와 삼략 그리고 칠중오신', 즉 전략과 군기에 관한 언급에서 중국병서의 활발한 수용과 전파의 흔적이 뚜렷하다. 975년 고려에 투항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 태조 왕건 또한 신라의 군제와 병학을 높이 평가했던 것도 결코 과장만은 아닌 듯하다.

결론적으로 삼국시대의 병학은 중국 병서의 수용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기보다 이미 고래의 한국적인 병법이 형성되어 보편화된 상황에서 한자의 수용과 함께 중국 병서가 들어와 임혀지면서 더욱 발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의 병법과 병학은 한국의 고래적인 병법과 후대에 전래된 중국의 병학적인 결합의 산물이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9. 11. 18, 심사수정일 : 2010. 1. 15, 게재확정일 : 2010. 2. 9)

주제어 : 군사사상, 선수후공전략, 청야전술, 이일대로, 안국병법, 명립담부, 부분노, 둔갑입성법, 김해병서, 무오병법

<ABSTRACT>

The Making of the Korean Military Art and Science in Ancient Korea and Her's Reception of the Chinese Military Works

Baek, Ki-in

Military tradition at the *Gojoseon* is origin of military philosophy in the Korea. She was early nation at the Bronze Age and the early Iron one, be certain that weapon was manufactured and used, the thought of heavenly Gods and chosen-people appeared when the ruler reinforced governing philosophy. Especially, she was intense about militarism and military-oriented character, did hard line with neighbor nations.

By the geological condition, she did the first defense the later attack strategy as defensive one, this one was inherited to the *Goguryeo*. *Goguryeo*, *Baekje* and *Silla* overflowed martial spirit at the overall society.

As ancient nation character, the Three State overall society had firm military appearance. The *Silla* occasion, owed national level concern and promotion with Buddhism and the code of *Silla* chivalry, martial spirit and defense spirit sublimated national spirit value. At the *Silla* society, it can noticeable that loyalty and filial piety thought decide their sense of nationalism and sense of life of death with Buddhism.

But, the formerly strategy was introduced before acceptance of China military science book at the Three States. *Goguryeo* strategy was composed of burnt ground tactics and let hard work our side rest tactics to cope China traditional tactics 'separation movement combining attack' this kind defense fortress warfare induced attrition one to erase enemy capability, established 2 fortress defense system with plain fortress to use natural terrain and mountain fortress.

The Three States generalized military science knowledge without critical mind when they accepted China any military science books. *Bubunno* played active role at the *Hsianpei* invasion at the BC 9, *Eulduji* did at the later Han's *Liaodung* Forces invasion at the AD 98, *Myeorimdabu* confronted against *Gyeomrimgun*, Han minister at the AD 172, *Goguryeo* produced this military science master. Especially, the strategy by the *Myeorimdabu* got many points at the tactical principle side with *Suntza* ping or the other any military theory, even though it was not exactly coincide with them.

Goguryeo Strategy and tactics defeated *Han* forces at the *Choawon* Battle in nov, 172 AD, this result was originated by the accumulation of *Goguryeo* military science. Anyway, the Three States introduced Buddhism or Confucianism from China, accepted Chinese character, too.

The China military science book propagated to the Three States with the Chinese character introduction.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y had firm development intention to further own military science than China military science. Furthermore *Paekje* men handed down military science to the Japan at the Three States days. It is not certain that introduction military science to Japan, *Baekje* own one or China one, be evaluated that a part correspond to the *Baekje* style mountain fortress.

After Unified *Silla*, military science or military book clearly appeared.

Ankuk tactics appeared at the AD 766. Mr. Kim Am learned necromancer magic at the Tang dynasty, wrote modifying reality doctrine, appointed *Sacheon* great master when he returned home, taught 6 battle formation at the off-season for farming. It was great fashionable tactics at the Tang dynasty, introduced and applied to the *Silla*, this fact inform that she maintained battle formation study and development.

Key Words: Military Philosophy, Geological Condition, Two Fortress Defense System, *Ankuk* Tactics, *Myeorimdabu*, Chinese Military Science, *Silla* Chivalry, China Traditional Tactics, *Baekje* Style Mountain Fortress, Kim Am